

시골길에서 백발노인과 마주쳤다. 우린 가볍게 웃었다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문태준 지음

만약, 책을 특정한 장소에서만 읽어야 한다면 시인 문태준의 것은 꼭 넓은 마당이 내다보이는 시골 뒷마루나 작은 발놀림에도 자갈이 울어대는 강가일 것 같다. 여기에 해가 한풀 꺾여 낮은 산 너머로 돌아가는 시간이거나 어느 겨울 오전이었으면 더욱 좋겠다.

아니, 아니다. 되레 숨 돌릴 새 없이 흔들리는 승객이 꽉 들어찬 버스이거나 직장 상사의 고향을 피해 몰래 시집을 펼쳐 읊조리는 것이 문태준의 서정을 더욱 서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도 같다. 시어가 곁돌고 시가 막막해진 세상, 서정이 낯설고 불편해진 도시에서 문태준의 시는 너무 넓어 더욱 귀하다.



문태준 시인의 신작 시집을 통해 강처럼 세상을 넘긴 마음으로 포용하는 시를 선보였다. 사진은 선진강 풍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시인 문태준이 여섯 번째 시집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을 펴냈다.

시집은 청소를 하다 우연히 발견한 첫사랑에게 보냈다가 되돌아 온 수취인불명의 편지 같은 울림을 준다.

이번 시집에는 지난 2014년 서정시학 작품상 수상작 '봄바람이 불어서'를 비롯해 모두 61편의 작품이 실렸다.

그의 시는 따뜻하고 평온하다. 나와 너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인연의 끈으로 묶여 내밀한 대화를 하는 관계로 그려진다.

가령, 이런 식이다.

"엄마는 엄마가 입던 스웨터를 풀어 누

와 내가 입을 옷을 짜네~중략~엄마의 스웨터는 얼마나 크고 두터운지 풀어도 풀어도 그 끝이 없네 엄마는 엄마가 입던 스웨터를 풀어 누나와 나의 옷을 여러날에 걸쳐 짜네 봄까지 엄마는 엄마의 가슴을 헐어 누나와 나의 따뜻한 가슴을 짜네" ('두터운 스웨터' 중에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엄마의 넓고, 깊고, 질긴 사랑을 시인은 스웨터에 형상화했다. 자신의 가슴을 헐어야만 누군가의 따뜻한 가슴을 짤 수 있는 계인간의 사랑임을 절절하게 보여준다.

또 삭막한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이미지도 잔잔한 감동을 준다.

"시골길을 가다 차를 멈추었다~백발의 노인이 길을 건너고 있었다 노인은 초초한 기색이 없었다~눈이 다시 마주쳤을 때 우리는 가볍게 웃었다"(우리는 가볍게 웃었다) 속도 경쟁 속에서는 미처 볼 수 없었던

노인의 느린 걸음을 시인은 한적한 시골길에서 마주한다. 속도는 곧 시간이다. 노인과 젊은 시인 간의 서로 다르게 흐르는 시간을 천천히 길을 건너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보여준다. 빠름과 느림, 늙음과 젊음이 서로 이해할 수 없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서로 바라본다면 가볍게 웃을 수 있다는 사유가 날카롭다.

시인은 또 느긋해 질 것을 권유한다.

"...오늘은 백옥세탁소에 들러 맡겨둔 와이셔츠를 찾아온 일밖에 한 일이 없네"(가을날) ...아버지가 무 구멍이에 팔뚝을 집어넣어/ 밑동이 둥글고 크고 흰/ 무 하나를 들고 나오시네/ 찬 하늘에는/ 한동이의 빛이 떠 있네"(겨울달) "날고 있는 잠자리와 그 잠자리의 그림자 사이 대기가 움직인다..."(대지) "말수가 아주 적은 그와 강을 따라 걸었다// 가도 가도 넓어져만 가는 강이었다// 그러나 그는 충분히



문태준 시인은 신작 시집을 통해 강처럼 세상을 넘긴 마음으로 포용하는 시를 선보였다. 사진은 선진강 풍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해되었다"(강촌에서)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가을날, 생명이 쉬 쉬는 겨울날의 풍경, 소소한 일상이 주는 깨우침, 말 없는 대화 등 눈 앞에 그려지는 듯한 시어들이 생동감만 가는 강이었다// 그러나 그는 충분히

시인은 이 시집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3년 간 쓴 시를 세상에 내놓아 다시 빈털터리가 됐다. 그래서 그는 "더욱 흥분한다"고 시집 말미에 '시인의 말'을 달았다. <창비·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난 돈 안받았다" 부인하는 사람들 '진실'을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더 트루스

메리앤 커린치 지음



이완구 총리 3000만 원 수수결과 관련,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총리는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뭘까.

전직 미국 CIA 비밀공작요원이자 세계적 정보 컨설턴트인 메리앤 커린치가 펴낸 '더 트루스'는 '진실 탐구'의 방법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진실을 읽는 관계의 기술'이라는 부제처럼 이 책은 진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탐구하고, 사실 간의 연결점을 찾아 객관적인 진실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다양한 정보원과 심리적, 감정적 유대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상세하게 다룬다.

저자는 "관계의 기술은 모든 정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상대가 누구이며, 어떤 상태이며, 어떤 감정을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제1부에서는 어떻게 진실에 다가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제2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진실을 찾기 위해 우호적인 정보원이나 적대적인 정보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저자는 이 같은 내용들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 국가기밀을 폭로한 전직 CIA, 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 등 다양한 인물들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진실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큰 해를 끼칩니다. 진실은 일이 일어난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진실은 실제이지 당신이 실제이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실이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모든 방면에서 길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본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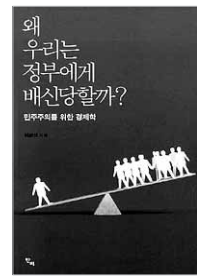
<인사이트앤뷰·1만4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 국민의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반반이 실망을 안기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책. 국민의 의사를 완벽하게 수렴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맹점을 짚어보고, 정부와 정치권이 힘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원인을 관료의 행태와 지도층의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환경제와 토지세를 강화하는 조세 개혁을 제안한다. <창비·1만8000원>

▲메이오 평전=75년 만에 처음으로 출간된 '메이오 평전' 한국어판. 미국에서 1941년 12월에 초판이 발행된 이래 50만 부가 넘게 팔린 이 책은 프랑스어·독일어 등을 비롯해 18개 언어로 번역됐다. 세계 최고의 병원 메이오 클리닉을 세운 메이오 일가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평전이자 메이오



가문과 메이오 재단이 인정한 유일한 공식 전기이기도 하다. <공존·2만5000원>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에 치유공간 '이웃'을 마련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치유하고 있는 '거리의 의사' 정혜신과 문학을 통한 사회적 실천에 앞장서온 '행동하는 시인' 진은영이 함께 만나 고민을 나눈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 새겨진 상처들을 섬세한 시선으로 살피며, 재난과 폭력을 겪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가족과 이웃들,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아픔을 따뜻하게 어루만진다. <창비·1만3800원>



▲사랑은 사랑, 인생은 인생=한국 최초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한국 포크-락의 전설, 뮤지션 한대수가 자신이 작사한 곡들의 가사를 모두 모으고, 이들 가사가 지닌 특별한 사연을 글로 써서 책으로 펴냈다. 그가 찍은 수만 장의 사진 가운데 가사에 어울리는 사진들을 뽑아서 함께 실은 것이 특징이다. 주요 작품 50여 곡에 얽힌 사연들은 한대수의 음악 인생 40년을 관통하며 지나간다. 부록 '한대수 악보집'에는 대표곡 22곡의 악보가 실려 있다. <북하우스·1만5000원>

▲한 알의 씨앗이 들려주는 작은 철학 = 도시농부 김한수 소설가가 자연과 교감



하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일구어간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텃밭농사 이후 저자 김한수는 소설가로서, '고양시도시농업 네트워크' 핵심 운영진으로서, 텃밭 선생님이로서, 글쓰기 강좌 선생님이로 활약하며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저자는 텃밭이 최고의 주치의이자 선생님이고, 심리상담사라고 말한다. <창어람미디어·1만3000원>

▲해방자 예수=예수회 가톨릭 사제이자 신학자인 손소브리노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도중에 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힘입어 스스로 해방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쓴 책이다. 저자는 엘살바도르가 내전을 치르는 와중에 수없이 절박한 상황을 만나고, 저술을 순조롭게 할 수 없는 많은 소모를 겪었다. 저자는 이 책을 예수에서 출발해 우리 현실을 신학 개념으로 비추고, 우리가 실제 만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룬으로 제시했다. <메디치·2만3000원>

어린이 책

▲행복=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감정을 느껴 보는 일은 중요하다. 자라면서 자신만의 생각과 주관을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감정을 느껴 보고, 또 계절의 변화와 세상에 섬세하게 반응하면서 친구와 함께 그 행복을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파랑새·1만2000원>



▲거짓말은 왜 자꾸 커질까? = 누구나 한번쯤 겪어본 이야기를 통해 거짓말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실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사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진리를 일깨워준다. 거짓말의 무게, 그리고 거짓말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의 자유와 행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재미 있는 인성동화다. <두레아이들·1만원>

▲아빠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 = 아빠와 아이의 일상,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신선한 울림을 선사한다. 주인공 그리이는 아빠에게 물려받은 것,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통해 사회성을 키워 나가고, 아빠는 자신이 아끼고 돌봐야 할 그리이를

떠올리며 하루를 더욱 열심히 살아간다는 점이 절로 느껴진다. <길벗어린이·1만1000원>

▲흥청망청과 땡전이 웬말?? =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우리의 역사 속 사건과 문화에서 유래된 유서 깊은 끈끈한 우리말의 세계를 살펴본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재미있는 우리말에 푹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린북·1만1000원>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품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총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오피스텔부지적합)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주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면적: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매가: 평당 15만원

▶지역: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해남 귀농

최고의 펜션

▶연소득: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장소: 해남읍서 대흥사 가는길목

▶면적: 1838평방미터 (대+전)

▶건평: 주택4동+캠핑카

▶매가: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면적: 3071평방미터 ▶면적: 3848평방미터 (계획관리) (계획관리)

▶매가: 9천만원 ▶매가: 5천5백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NAVER 건강생활관리사 단비플라워 추천상품

단비플라워

죽아화원3년 근조화원3년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백배성) 302-0316-64951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지요?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Ym 유한메디카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 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에 드립니다 ※

DUMNAVER 백세생활건강

문의 H.P.010-3598-7080/1899-3975